

식물생산생산과학부

작물생명과학전공

crop Science and Biotechnology

김창균 선배님 ... 농업전문기업 수보

P.2

이윤주 선배님 ... CJ 제일제당 소속 연구원

P.6

김준환 선배님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P.10

농업의 혁신을 꿈꿔온 제 목표는

세계 1위의

농업 전문 기업입니다



작물생명과학전공(농학과) 90학번

농업전문기업 누보 대표이사

김창균 선배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농학과 90학번 김창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김도순 교수님이 맡고 계시는 작물 분자 생리 및 잡초 과학 연구실의 전신인 작물 생리 및 잡초 방제 실험실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을 한 후에는 모 농업회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와 제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곳에서 한 3년간 근무를 한 다음에 나와서 2003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신 직장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농업 전문 기업입니다. 농약과 비료를 주로 제작합니다. 이외에 농산물도 수출하고 농업과 관련된 서비스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장을 방제한다든지 관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필리핀에서 쌀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께서 맡고 계신 업무는 무엇입니까?

“저는 회사의 대표 이사입니다. 따라서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회사의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일반 회사의 대표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해당 분야의 전망은 어떤가요?

“어렸을 때 부친의 영향을 받아서 농업과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어렸을 때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당시 농업 쪽에서 저는 충분히 비전을 봤었고 이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농업이 전도유명한 산업이라 생각하고 이 발전하는 산업 속에서 저희 회사도 잘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인공지능,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해서 직업이 없어지거나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농업은 그러한 변화의 물결 안에 놓여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이라는 것은 인간의 식량과 관련돼 있는 근본적인 1차 산업이라는 점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인공지능이 대체를 할 수 있어도 농업에서는 일정 부분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한국 내 농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농업 쪽에서 한국은 사실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낮은 게 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농업을 전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한국 시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시장을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아직은 한국에 있는 많은 농업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전부터 해외시장을 두드리고 있고,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업이라는 산업은 단순히 국내 시장만을 보면 안 되고, 해외를 보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이나 열정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세계적으로 우수합니다. 그 장점을 이용해서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고, 해외에서도 시장을 만들어 나간다면 저는 한국도 농업의 전망이 밝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나라 사람의 창의성과 열정
그 장점을 이용해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고
해외 시장을 만들어 나간다면
저는 한국도 농업의 전망이
밝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 시절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다 까?

“학부 시절에 진로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대학원을 가려고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보니까 공부가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석사 학위를 진학했었고, 석사 학위를 하다 보니까 박사 과정도 욕심이 났지만 집안의 형편상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박사 과정은 진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요했던 것은 저는 전공을 살려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회사를 갔었고, 회사를 나와서 사업을 해도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했던 것이죠.”

해당 분야, 직종으로 진로를 선택한 계기가 있다면 무엇 이었나요?

“사실 저는 막연하게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고, 이 쪽 분야를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었기에 농업 회사를 들어가고, 회사를 차리고 했던 것 같아요. 농업 회사 연구소에서는 제가 좀 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고 싶어 했었는데, 이게 그 쪽 연구소에서는 환경 상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창업했고, 획기적인 제품을 직접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품이라고 하면, 비료나 농약 이런 것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비료나 농약 같은 것도 기존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개발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가령 300평의 땅에 기존의 비료가 100kg가량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양도 작물의 생육기간을 고려해서 여러 번 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300평당 작으면 500g, 많은 3kg 가량을 써도 작물의 생장을 충분히 돕는 비료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에서도 선 보이고 있고, 해외에도 진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농사방법을 바꾸는 거죠.”

현재 직접 경험하는 직업이 대학 시절 생각 혹은 기대했던 진로와 비슷한가요?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제일 처음에 과학자라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대학 시절 기대했던 진로로 가기 위해 농약회사 연구소로 갔는데 그게 저가 살고자 했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들을 만들어보고 하는 것들이 제가 하고 싶어 했던 것인데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는 안 되었어요. 또 국내 다른 회사도 알아봤는데 대부분이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자율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만들었고, 지금 현재는 누구보다도 만족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기대했던 진로와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 특히 학업 분야에서 지금의 자신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대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물리와 화학을 선택해서 공부를 했는데, 당시에 화학이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기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농학과였기 때문에 화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만 들어도 되었어요. 제가 그래도 농화학과를 찾아가서 유기화학이라든지, 생화학이라든지, 분자생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초가 되는 학문들을 많이 학부 때 들었고, 그런 다음에 대학원에 갔을 때 작물 생리를 전공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대학원 생활하는 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대학원 때 전공했던 작물 생리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품 개발을 할 때에도 제가 배운 지식을 통해서 원리가 이해가 되었거든요.”

지금 선배님의 위치에 오기까지 가장 큰 위기가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사업을 하니까 매일 위기인 것 같습니다. (웃음) 사실은 아무래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가 상당히 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안이 있어서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회사는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달랐기 때문에 자본금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때가 가장 위기라고 하면 위기였었죠. 저는 그걸 가지고 무역을 가장 먼저 시작했었습니다. 무역을 하게 되면 내 자본없이, 돈을 받아서 물건을 공급해주고 사이에서 일부 수수료를 얻는 걸 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을 1년 정도 하다가, 자본금이 쌓이면서 사업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서도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건이 터졌었는데 이러한 위기들이 바탕이 되어서 사업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오는 것도 사람 덕분이지만, 위기를 겪은 것도 사람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같은 진로를 꿈꾸는 재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팁이 있다면?

“우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공을 살려서 가려고 하려면, 현재 학교 다니면서 전공에 관련된 수업을 잘 듣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머물러 있거나, 지금 위치에 안주하게 되면 단순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니까 퇴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발 나아가서 실패를 경험해도, 경험이라는 내 자산이 쌓이는 거니까 많은 시도를 하고 많은 실패를 해라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업이 아니고 공무원이거나, 직장을 다니더라도 꾸준히 도전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맡은 업무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점점 더 많아지구요. 실수하고 실패하면 되게 뭐라고 하는 회사들도 많은데 암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화를 위해서 계속 시도하고 실패도 해보고 해야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에게 ‘대학 졸업 전 꼭 해봐야 되는 일’로 추천하는 일과, ‘대학 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미팅을 많이 해봐야합니다. (웃음) 농담이구요.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들이 제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 동아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선배 후배들 사이 인간관계, 선배들에 대한 존경, 예의였어요. 그래서 그게 몸에 뱓고, 군대를 갔다와서 보니까 제가 동아리 생활을 잘 했더라고요. 군대에서 위계질서도 제가 아주 쉽게 적응할 수 있었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플러스 알파 요인을 대학교 때 속했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과생활이나 여러 활동을 통해서도 가능하죠.”

후회되는 일은 공부를 생각보다 열심히 안 한 것입니다. 서울 생활을 열심히 했어서 공부를 학부생활 할 때에는 아주 많이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군대 이후에는 비교적 열심히 하고, 대학원에 가서도 열심히 했어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의 계획을 여쭙봐도 될까요?

“저는 저희 회사가 농업 부문 농업 전문 기업으로 있어서 전 세계 1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 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농업에 혁신을 이루어 내고, 그렇게 하다보면 충분히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농업에 혁신을 이루어내고
그렇게 하다보면 충분히
세계 1등기업이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농생대 졸업생’이 가지는 강점, 경쟁력이 무엇일까요?

“농생대생은 서울대 내에서 보면, 선배 후배 사이에서 유대감이 훨씬 더 우수하거든요.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번째는 이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몸담고 있는 농생대생들의 앞으로의 비전은 굉장히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서울대생들을 만나면, 강의를 할 때면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해라.’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직군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는데, 아무래도 서울대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야기를 해도 서울대생만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기 십상이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서울대학생들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상황에서 겸손하게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더욱 더 폭넓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인터뷰 | 17기 윤정인
편집 | 17기 윤정인
16기 이호영

‘벼를 제일 잘 아는 연구원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제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작물생명과학전공 06학번
CJ 제일제당 소속 연구원
이윤주 선배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물생산과학부 작물생명과학전공 06학번 이윤주입니다. 2010년 학부 졸업 후 석사, 박사학위를 모두 작물생명과학전공 고희중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취득했고, 현재 ‘CJ블로썸파크’라는 CJ 제일제당 소속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사, 박사 학위를 따로 하신 겁니까?

“네. 저희 실험실의 경우 석박사통합과정보다는 석사와 박사를 따로 취득하는 것을 선호했거든요. 결과적으로 학부부터 따지면 모든 학위를 마치는데 10년 가량이 필요했지만, 석사 과정을 마무리하며 학위 심사를 받고 논문을 써 봤던 것이, 박사 과정에서 제대로 논문을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반을 대변하기엔 부족하지만 대략 소개를 해 드리면, CJ그룹은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기업이죠. 과거 설탕 제조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요즘 마트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비비고 브랜드, 빙스/제일제면소 같은 외식업체, 헬스 및 뷰티와 관련한 올리브영, tvN 채널을 방송하는 E&M,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관 점유율 1위인 CGV 등이 CJ에 소속되어 있죠. 지금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진출하여 K-food, K-beauty, K-culture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선배님께서 맡고 계신 업무는 무엇인가요?

“저는 CJ 제일제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CJ 블로썸파크’라는 곳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블로썸이라는 이름은 그룹 CJ가 꽃을 피우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서 차용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각 사업 연구소가 각기 다른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식품/BIO 핵심 연구소를 한꺼번에 모아서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하게 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종합 연구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의 업무는 햇반 제품과 연계된 원물 연구입니다. 햇반은 많은 연구원들의 다양한 연구를 거쳐 탄생한 제품인데, 소비자들이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연구개발 중입니다. 저는 그 수많은 연구 과정 중 가장 초기 단계에 있는 원료, 즉 쌀에 관해 연구 중입니다. 벼의 유전적 특성부터 재배, 가공 품질 전반에 대한 실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망은 어떤가요?

“아시겠지만, 농학이든 식품이든 현재의 산업 자체가 아주 Hot 하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생명공학 분야가 여전히 주목받고 있긴 하지만, 최근 급부상한 AI나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농업과 식품 분야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먹거리에 관해, 생명에 필요한 근본적인 요구에 응하기 위한 연구를 하다 보니 그 필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농생대 학생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농업을 유망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전의 사고 방식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식품, 바이오 및 의약과 연계된 산업을 보면 그린바이오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분야가 참 다양하다고 느낍니다. 그 예로 스마트팜을 들 수도 있겠네요. 스마트팜의 경우 기계, 센서 등 다양한 전문가가 필요하겠지만 아무래도 분명히 작물을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죠. 발전된 학문을 토대로 농학을 전공한 인재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학부 시절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저의 가장 큰 목표는, 단순하지만 평생 일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평생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보니까, 어떤 영역의 전문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 직종이 있지만, 저는 제 전공에 매력을 느껴 이 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가 되려면 학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학부 3학년때 저는 교회중 교수님을 무작정 찾아 뵙고 상담을 부탁드렸는데, 교수님께서 연구 경험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3학년 때부터 실험실 선배들과 지내면서 실험을 배우고 연구 과정을 간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학부 졸업논문을 낼 때 제가 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논문을 제출했는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했어요. 저는 석사를 졸업하는 시점에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석사를 졸업하고 기업에 들어갈 것인가, 혹은 박사까지 이어 나갈 것인가라는 두 선택지에서, 결국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끝까지 해보겠다는 결심을 했고,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평생 일을 하고 싶다는 저의 목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거에 비해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여성이 끝까지 사회활동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 힘든 부분이 아직 있어요. 출산과 육아와 결부되어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이러한 사항들을 극복하려는 생각에도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저의 가장 큰 목표는,
단순하지만,
평생 일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평생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보니
**어떤 영역의
전문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직접 경험하는 직업이 대학 시절 생각, 혹은 기대했던 진로와 비슷한가요?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저는 회사를 생각하면 뭔가 일에 찌들어 있는 직장인의 모습이 떠오르고, 아무리 연구직이라 하더라도 무기력하게 사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회사에 막상 들어 오고 나서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활동적이고, 활발하게 연구를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식품회사에서는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트렌드 캐칭을 하는데 있어서, 정체되어 있지 않고 움직여야만 해요. 또한 육종과 같은 연구는 한번 시작하면 5년 이상이 걸리게 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다 보니 미래 예측을 잘 해야 해서, 끊임없이 찾아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죠. 연구소에 갇혀 있지 않고 해당 분야의 연구를 진행 중인 교수님을 초청해서 이야기도 듣고, 세미나도 많이 개최하고 다양한 학술 활동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회사원이라는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보다 논문을 더 열심히 보고, 연구하는 재미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 특히 학업 분야에서 지금의 자신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교양 수업을 들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 미술, 음악, 스포츠 등 우리 학교처럼 다양한 교양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종합 대학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학위를 하게 되면 자기가 아는 분야에 대해 좁고, 깊게 알게 되는데 교양 수업은 다양한 지식을 쉽게 얻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한 동아리 활동을 한 것도 제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스누피이라는 동아리를 1기로 들어갔어요. 당시에는 동아리 규모가 작다보니까 사람들 사이가 엄청 돈독했거든요. 다양한 사람들과 아주 친하게 지냈고, 아직까지도 연락을 이어오고 있어요. 각자 자기 분야에서 잘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서로 정보도 도움도 많이 받고 있죠.

학업적인 측면에서 저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후배님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영어로 말하는 게 굉장히 서툴렀거든요. 스테디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실력을 키우니 자신감도 많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노력을 했던 것이 이후에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선배님의 위치에 오기까지 가장 큰 위기가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제게 가장 큰 위기는 사실 졸업을 무사히 하는 것이었어요. 대학원 생활을 할 때는 하루의 끝이 없었는데, 방학도 없고 주말도 없이 연구 주제에만 오로지 집중했어요. 이러한 일들이 결국 나의 미래라는 생각이 드니 더욱 집중력이 강해졌죠. 저의 경우에, 실험이 잘 안될 때는 모든 제 시간이 그 실험에 투입되고, 친구를 만나서도 실험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났던 것 같아요. 필요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아주 힘들었죠. 또 제 전공은 벼를 생육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1년에 한 번 농사를 짓기 때문에 올 해 결과가 잘 안 나오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물론 저에게 오래 걸리는 실험은 다른 연구자에게도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 시간을 인내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런 여러가지 힘든 시간들을 거쳐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진로를 꿈꾸는 재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팁이 있다면?

“저는 학위를 마치고, 산업으로 바로 뛰어든 경우인데, 그런 실질적인 산업 속에서 내 연구 결과물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품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같은 생각으로 저처럼 회사에 입사하길 원하는 분들은 조금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는 박사 인력을 뽑을 때 수시 채용으로 선발합니다. 회사에서는 특정 분야에 인재 발굴의 필요성을 느껴서 선발을 하는지라,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채용 분야를 잘 모른다면 선발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자기가 논문 주제로 연구하는 분야는 굉장히 좁기 마련인데, 본인의 논문 주제 이외에도 같은 실험실 동료들의 연구 주제에도 관심을 갖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혹은 책이나 매체를 통해서 본인이 자신 있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전공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 생활을 할 때는
하루의 끝이 없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결국
**나의 미래라는 생각이 드니
더욱 집중력이 강해졌죠.**

후배들에게 ‘대학 졸업 전 꼭 해봐야 되는 일’로 추천하는 일과, ‘대학 생활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아리 활동을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회회도 나가고, 연회회 사회도 보고 했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친구들과 사이가 좀 더 돈독해지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와 비슷한 루트로 진출을 하신다면, 전공 과목 중 에 재배학이나 식량작물학과 같은 베이스를 이루는 과목 들을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물의 재배/생 리, 잡초방제 등과 관련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정 확한 내용을 찾기가 힘들고 따로 가르쳐 주는 곳도 없기 에 수준 높은 대학 교육의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해 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뻘한 이야기이겠지만, 영어 공부는 이 글로벌 시대에 원하든 원치 않든 필수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어는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그 실력이 저하가 되 더라고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글로벌 무대에서 일을 해야하는 기회가 증가 하다 보니 영어는 베이스로 갖고 가야하는 경우가 많아 졌어요.

연구를 하게 되면, 어떤 분야를 하든지 통계 또한 필 수적입니다. 연구 결과에 신뢰도를 높이려면 통계처리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통계학은 배워 놓아야 해요. 저 도 대학원 때 수업 들은 게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수업을 들은 사람과 수업을 안 들은 사람의 차이는 꽤 큰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 독학해도 상관 없지만, 기회가 있을 때 퀄리티 높은 대학 수업을 통해 어느 정도 배워둔다면 추후에 다시 공부하기에도 편할 것 같아요. “

전공 과목들은
수준 높은 대학 교육의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해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여쭙봐도 될까요?

“계획이라기보다는 큰 목표이지만, 우리 회사에서 베틀 제일 잘 아는 연구원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제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학위를 취득했다 할지라도 제가 집중 연구한 분야는 굉장히 좁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게 계속 지식과 경험을 쌓다 보면 벼에 있어서 는 전문가로 일하고 싶다는 제 꿈에 얼추 다가갈 수 있겠 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농생대 졸업생’이 가지는 강점,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첫째로 선배들이 정말 탄탄합니다. 정부 부처, 대학교, 기업 할 것 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 선배님들이 많은 성과도 내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회에 나가서 선배님들을 만나 뵈었을 때 반가운 감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가끔 기회가 될 때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식견을 빌릴 때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견주어 봐도 연구 인 프라나 인력 측면에서 뒤지지 않습니다. 졸업 후 학교를 떠나보니, 서울대는 정말 수많은 저널의 논문을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각 저널을 정기 구독해야 가능한 혜택이죠.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유능하신 교수님과 연구원 분들 덕분에 많이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농생대 학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인터뷰 | 17기 윤정인
편집 | 17기 윤정인
16기 이호영

다양한 것을 공부하고 경험해보세요

**자신이 잘하는,
흥미로운 일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작물생명과학전공(전 농학과) 94학번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원
김준환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학과(현 작물생명과학전공) 94학번입니다. 학부는 99년에 졸업을 하였고 2001년에 석사학위를 받은 후에 늦게 군대에 갔습니다. 석사학위는 이변우 교수님의 도작 실험실(현 작물생산환경연구실)에서 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도에 농촌진흥청에 들어온 이후 2006년도에 박사과정을 역시 이변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시작하여 2010년에 학위를 받았습니니다.”

현재 재직 중이신 직장(‘농촌진흥청’)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농촌진흥청은 해산물과 임산물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모든 종류의 먹거리들에 대한 1차적인 생산 연구를 하는 국립 연구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4개의 연구소, 국립식량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립식량과학원은 식량작물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원예작물과 특용작물을,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환경, 농기계, 농식품 등을 각각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립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이고 어떤 직급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국립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연구직과 행정직이 존재하고 연구직은 연구사와 연구관으로 2개의 직급이 있습니다. 연구사는 일반 행정직 7급과 6급 사이정도로 보면 되고, 연구관은 5급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저는 연구사입니다.

업무는 각 연구소별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포장에서의 연구업무와 실내에서의 실험, 농가 및 현장 출장 업무들이 있고 행정업무도 있습니다. 개인이 고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저희 식량원에서는 많지 않고 출장도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출장은 국내 출장도 많지만 국외 출장을 갈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연구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논문, 특허 등의 성과를 요구하고 그 외에는 정책 현장과 농민을 위한 별도의 성과도 역시 내야합니다. 하는 일에 대한 본인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편이라 계속 노력해야만 합니다.”

선배님께서 맡고 계신 업무는 무엇인가요?

“저는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주요 임무는 크게 작물의 육종, 재배, 기능성 향상 및 농민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부서는 이들 중 벼, 콩, 맥류 재배와 생리 업무가 중점인 작물재배생리과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벼 재배 연구와 작황 예측 연구입니다. 작황 예측 연구는 장기적인 측면과 단기적인 측면을 나누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것은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쌀의 생산 변동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재배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것은 당장 올해의 벼 생산량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측 업무이기 때문에 벼의 생리적 특성을 연구해서 이를 수치화하여 모델링을 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망은 어떤가요?

“농업 분야 자체는 지구 상에서 가장 오래된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중요도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이고 현재 많은 나라에서 4차 산업에 따른 확장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분야가 농업입니다. 현재 농업도 많은 부분이 기계화가 되어 있지만, 말 그대로 기계화이지 자동화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 연구 자체가 힘이 많이 드는 분야입니다. 특히 포장에서의 연구 가능 인력은 국제적으로도 인원이 많지 않아서 전망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부 시절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저학년 시절에는 진로와 관련해서는 크게 고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3학년부터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술고시 (지금은 행정고시 기술직렬) 공부와 대학원 진학을 동시에 준비 했습니다. 일반 회사의 영업 등과 같은 일은 저하고는 맞지 않아서 처음부터 일반 회사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졸업 후의 일을 결정할 때 제가 좋아하는 일보다는 제가 잘하거나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가 어떤 종류인지를 고민하였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지 않은 것은 취미였던 것을 직업으로 했을 때 고통스러워 하는 경우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를 고민한 것은 평생을 해야 할 일이라면 제가 견딜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성격을 잘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성격은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면 알 수 없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해보고, 알바도 해보고, 뭐든지 본인이 이제까지 하지 않았거나 못해본 일들을 최대한 해서 본인을 파악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졸업 후의 일을 결정할 때
제가 좋아하는 일보다는
**제가 잘하거나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가
어떤 종류인지를
고민하였습니다.**

해당 분야, 직종으로 진로를 선택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해당 분야로 오게 된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사 업무는 저와 맞지 않았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국제적인 업무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군생활 중에 WFP 국제 기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농촌진흥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들어가서 실무 경험을 쌓은 후 국제 기구를 가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은 연구 조직에 와서 행정 업무와 연구 업무를 다한 결과 저에게는 연구 업무가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곳에 계속 있습니다.”

현재 직접 경험하는 직업이 대학 시절 생각 혹은 기대했던 진로와 비슷한가요?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실습도 해보고 알바도 해서 이곳에서의 어떤 일을 하고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하신 부분의 의도와 맞게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많은 경험을 하시고 관심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인턴이나 알바를 꼭 해보라고 권해드립니다.”

대학 시절, 특히 학업 분야에서 지금의 자신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최대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농화학(現 응용생명화학전공) 과목을 부전공 수준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경영학, 경제학 강의와 같이 전혀 분야가 다른 타과 전공 과목도 수강했습니다. 많은 과목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 또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학문 분야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가급적 많은 분야의 과목을 수강하기를 권유하는데, 학점 관리 때문에 곤란하다면 듣고 싶은 과목의 교수님과 상의하여 청강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은 본인의 꿈보다는, 점수에 맞춰서 진로에 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 보면, 본인이 연구에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정책을 결정하는 직책이 적합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공(농학, 작물생명과학)으로 한정지어 학업에 도움이 된 것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전공은 응용 분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과목이 중요합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재배 분야와 작황 예측 분야이고, 이 분야는 방대한 자료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계학 및 전산 관련 분야를 배웠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분야는 또 결국 일종의 현장 생물학 연구이기 때문에, 학부나 대학원 시기에 농장 실습을 나갔던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같은 진로를 꿈꾸는 재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팁이 있다면?

“연구직은 크게 국가직과 지방직이 있습니다. 모두 다 공채 시험이 있고, 전공 과목을 제외한다면 일반 공무원 7~9급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경력직도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객관식 시험에 강하다고 생각하면 학부때 준비해서 공채합격을 노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대학원에서 학위를 하면서 경력직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업무에 투여되는 일이 많아서 석사 이상을 하고 오는 것이 권장되는데요, 물론 법적으로는 학부생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후배들에게 ‘대학 졸업 전 꼭 해봐야 되는 일’과, ‘대학 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졸업 전에 꼭 해봐야 하는 것은 동아리 활동이나 학회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때로는 상당히 귀찮을 수도 있지만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회 생활, 일 처리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제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죠. 이런 활동들이 실제 직장 생활과 업무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기에, 저는 동아리, 학생회, 봉사활동, 또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자발성을 필요로 하는 일을 꼭 하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편 후회되는 것은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을 활용해 여행을 다녀볼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여쭙봐도 될까요?

“학문적으로는 제가 하는 분야에서 아직 외국에 의존하는 작물 모형에서 자립하여 국내만의 모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측면이라면 제게 있는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농생대 졸업생’이 가지는 강점,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농생대생은 본인이 잘 계획한다면, 배우는 내용의 범위를 상당히 확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분야를 접할 때 적응이 상당히 빠를 수 있습니다. 최근의 학문 분야는 여러 분야와의 융복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상에 땅이 있는 나라들 중에서, 농업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배운 바를 펼칠 수 있는 곳이 전 세계가 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학부에 있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와 관련될 텐데요, 이러한 2가지 강점을 가지고 최대한 넓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길이 보일 것입니다.

인터뷰 | 17기 윤정인
 편집 | 17기 윤정인
 16기 이호영

식물생산과학부

원예생명공학기술전공

Horticultural Science and Biotechnology

안효진 선배님 ... 해동상사 P.14

성동걸 선배님 ... LG 화학 P.18

김진희 선배님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P.25

고민이나 생각은 바뀔 수 있지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기회를 잡아요

원예생명공학전공 84학번
해농상사 대표
안효진 선배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농생대 원예학과를 84년도에 입학한 안효진입니다. 졸업은 군 복무 뒤 91년도 9월에 했어요.”

지금 재직 중이신 현대건설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해농상사의 대표, 사장을 맡고 있는데요. 한국의 농식품을 해외(중국, 미국)로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루는 농식품으로는 밤, 막걸리 등이 있어요. 또한, 해외 농산물, 냉동식품 등을 수입 식품 제조업체로 납품 중입니다. 그 외에도 국영무역(aT) 해외 조달 입찰에 참여하고, 기타 농식품 중심 벤처사업 연구, 신규사업을 개발 등을 하고 있어요.”

현재 직업을 얻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으셨나요?

“우선 대학 졸업 후 해태그룹 소속의 해태 상사의 농산팀에서 7년동안 근무했어요. 당시 현지에서 주재원을 꿈꾸고 준비했지만, 곧 IMF가 터지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제 사비로 중국에 1년동안 유학을 갔다 왔어요. 덕분에 중국어는 능통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돌아와 그 후 1999년 9월에 창업을 시작했죠.”

해당 분야, 직종으로 진로를 선택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실 학부 시절엔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농산물의 유통과 수출 후 상품화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분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결국엔 무역도 일종의 유통 과정이에요. 다만 국제법과 상관례의 적용을 받기도 한다는 점이 독특하다고 할 수 있죠.”

현재 직접 경험하는 직업이 대학 시절 생각 혹은 기대했던 진로와 비슷한가요?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모든 업종, 직업은 대학 시절에 생각한 것과 실제적으로는 많이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상사맨으로서 최고의 보직은 영업이에요. 기획, 관리, 총무 등 많은 업무들이 그럴 듯해 보이지만 사실 지원 조직에 불과합니다. 상사 영업은 기획조사부터 개발, 영업, 채권관리 및 향후 비전까지 망라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사슬의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모두 컨트롤하며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지요.”

상사맨으로서 활동하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상사맨이 되기 위해선 활발한 성격, 원만한 대인관계, 외국어 능력, 냉철함과 신뢰감,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을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사맨에 잘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어는 2가지 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냉정한 현실판단력, 숫자 감각, 폭넓은 개념적인 이해력, 국제적 정세판단력 등이 필요해요. 상사는 한 분야를 깊게 수직적으로 아는 것보다 많은 분야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나 다양한 개론 공부를 잘 해두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식품공학개론, 축산학개론, 농업기상학, 일반농업경제학 등 다양한 개론을 공부해 개념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고 있는 전공, 학문을
계속하려는 후배들은
좀 더 한 분야를 깊이 파되,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선배님께서는 원래 상사맨에 맞는 성격이셨던 건가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었고, 음... 먼저 나서기 좋아했죠. (웃음) 그리고 좀 급하고,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제가 대학원에 가서, 연구실에 있었으면 되게 불행했을 거예요. 연구실에서 종자의 직경, 두께 이런 거 측정하는 섬세함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 저랑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선배님께서 생각하는 상사의 장점과 매력은 무엇인가요?

“사업을 하다 보면 온갖 사람을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자신이 있고, 배짱이 있으면 상사맨을 꿈꾸어보세요. 종합상사를 가서 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회사 돈으로,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해볼 수 있다는 것, 그게 종합상사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생활도 할 수 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매력이 있는 게 상사맨의 생활입니다.”

대학 시절, 특히 학업 분야에서 지금의 자신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 분야의 개론을 많이 들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앞서 말했다시피 상사는 많은 분야를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개론에서 들었던 폭넓은 지식이 자주 쓰이게 됩니다. 또한, 신문을 구독하고 인문, 사회, 철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대생으로서 무식한 것은 무책임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재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팁이 있으신가요?

“배우고 있는 전공, 학문을 계속하려는 후배들은 좀 더 한 분야를 깊이 파되,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회 진출을 꿈꾸는 후배들은 자신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일을 좋아하는지 판단한 후에 그에 맞추어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하게 현재 돈이 되는 곳에 진출하려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때는,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자연계열 학생들을 ‘너네는 기술자잖아, 결국엔 내 밑이야.’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엔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연과학적으로 모든 걸 접근하되, 사람이기 때문에 인문사회철학적 지식을 받아들이기 쉽지만, 그 역방향은 잘 성립하지 않아요. 프라이드를 갖도록 하세요. 대신 항상 책은 많이 읽으세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을 이길 순 없거든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 중엔 가짜 지식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정보를 찾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정보를 얻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생대에도 여러 가지 진로가 있잖아요. 공무원, 사업, 취직 등 학부생 때 진로를 고민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좋을지, 어떤 정보를 찾아보면 좋을지 말씀해주세요.

“음, 고민하지 말고 우선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고민이나 생각은 바뀔 수 있죠. 근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기회를 잡아요. 그러니까 자신 성격이 활발하다, 아니면 연구가 체질에 맞다, 그런 걸 먼저 찾아야 돼요. 자신을 먼저 냉정하게 바라보고, 내가 활발하다 싶으면 국제기구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준비는 돼 있어야 해요. 고민은 하되, 미리 준비는 해라! 내가 당장 할 게 없어서 대학원 석사 학위를 하면서 시간을 버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2년 동안 석사 학위 하면서 공무원 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원의 분위기도 알 수 있고, 2년 동안 생각의 시간을 더 가질 수도 있어요. 사람의 뇌는 25살에서 30살까지 계속 발달해요. 지금 여러분은 데이터 채워나가고 쌓아나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올드세대들은 데이터는 좀 있는데, 아집이 창의력을 저해하고 머리 회전이 좀 늦어지고 있는 거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 1년이 정말 소중한 거. 갖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1년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로를 선택할 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1순위고, ‘자기가 무엇에 잘 맞는가’가 2순위예요. 만약 여러분이 학자가 되고 싶으면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반면에 사회로 나갈 사람이면 개론을 많이 공부 하라고 하고 싶네요. 자기 학과에 매몰되면 안돼요. 집약농업을 하는 원예 전공이라도, 조방적인 농업을 이해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 생산물인 원료가 어떻게 산업화되는지도 알면 좋고요. 요즘은 퓨전의 시대고, 사교가 여러 분야를 넘나들어야 해요. 내가 원예학과라도 축산학개론도 들어보고 그러는 게 좋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방면으로 다양한 지식을 개념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식물 생산하고 축산학이나 식품 분야가 먼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사회 나와보니까 좀 더 개론을 많이 들어 봤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농생대 졸업생’이 가지는 강점,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타 대학과 비교할 수 없는 우수한 자질의 신입생이 모이고, 빼어난 교육환경과 최고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죠. 또한, 농업분야에선 서울대생이라는 희소성이 있기도 합니다. 서울대 농생대 졸업생으로서의 경쟁력, 강점은 충분히 뛰어나죠.

다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항상 사람들은 ‘서울대생’에 대한 기대가 크고, 동시에 질시도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를 항상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농식품 학계, 산업계, 정관계의 리더가 될 사람들이므로 더욱 자신에게 엄격하고 책임감 있는 후배들이 되기 바랍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고민이나 생각은 바뀔 수 있지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기회를 잡아요.**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후배들에게 몇 가지 화두를 던져보고 싶네요. 후배들이 한국 농식품의 현실에 대해 냉정한 판단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나라가 농사짓기 적합한 나라인가?
- 농업, 농민, 농촌 문제를 너무 정치적 해법으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만연하지 않나?
- 토양 오염과 하천 오염의 원인은? 생산을 줄이더라도 좋은 환경을 누려야 하지 않는가?
- 식품산업에 대한 배려와 장기적 발전 방안이 있는가?
- 불량식품, 농산물 원산지, GMO, 친환경 생산물 등의 이슈는 정말로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현실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가?
- 생산력 증대를 통한 농가 경제 지지 방식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 시를 활용한 미래 농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향후 계획이 어떠한지 궁금한데요, 국가나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예정이신가요?

“비즈니스로는 작은 성공을 이루었으니까, 책을 써서 낸다거나 제가 얻은 지식을 남기고 싶어요.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배운 지식들을 후배들에게 넘겨주고 싶죠. 연구자가 보는 농산물과 상사로서 보는 농산물은 다르거든요. 제가 상사맨으로서 얻은 지식들을 기록물로 남겨주고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기록 문화가 조금 약해요. 농생대에선 선배들이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놓는지 모르겠네요. 다들 바쁘다고 가버리나? (웃음) 다들 같은 나이에 똑같은 경험, 실수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농업선진국인 네덜란드로 자주 견학을 간다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런다더군요. 너네는 왜 10년동안 똑같은 질문을 하고 가느냐고. 같은 조직과 단체가 가되 전임출장자의 기록이 전달이 안되고, 그 후임자들은 다들 그냥 보고 온 거죠. 똑같은 질문지 들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비록 농생대가 4년 동안 머물다 가는 곳이지만 농생대생들이 본인의 역사를 기록하고, 본인의 경험을 전달하는 그런 기록 문화가 자리잡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 17기 윤석주
16기 윤유민
편집 | 17기 윤석주
16기 이호영

분야의 전망, 비전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 흥미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원예생명공학전공 87학번
LG 화학 연구원
성동렬 선배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예학과 87학번 성동렬입니다. 그 당시에는 학부라는 게 따로 없었고, 농생대 안에 농학과, 원예학과 이렇게 학과가 있었어요. 저는 원예학과에 87학번으로 들어갔고, 4년 다녔으면 91년에 졸업했겠지만 1년 휴학하고 미국 다녀온 것 때문에 92년도에 졸업했어요.”

박사 학위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박사 과정까지는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박사 학위까지 했는데, 서울대학교에선 학사까지만 했고요. 석사, 박사 과정은 미국에서 했어요. 플로리다 대학에 가서 석사, 박사를 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하고, 그리고 미국 ‘몬산토’라는 종자 회사에서 10년간 근무하다가 17년 6월에 LG 화학으로 와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직 중이신 LG 화학에 대해 간단한 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LG 화학은 아시다시피 화학 기업으로써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소재를 가지고 기능성 플라스틱이나 소재를 만들면서 성장한 기업입니다. 10년 전부터 다른 사업 분야도 많이 개척하고 있어요. 그중 하나로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기술적으로 가장 선도하는 기업이 되었어요. LG 화학에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그 분야에 쏟아붓고 있고, 조만간 커다란 성장을 이루어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바이오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LG 생명과학이라는 회사가 따로 있었는데, 그 회사를 LG 화학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지금은 생명과학 사업 본부가 생겼어요. 생명과학 사업 본부에서 항암물질, 제약 같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그린 바이오인데요, 바이오라는 커다란 위상 밑에 LG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레드 바이오가 있고,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산업용 신소재를 대량생산하는 화이트 바이오가 소규모로 있고, 그리고 그린 바이오가 있어요. 그린 바이오는 한 3~4년 전에 LG 화학이 팜한농이라는 종자회사 및 농약회사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팜한농을 지원하면서 글로벌 사업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기술 역량을 구축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LG 화학 법인 내에 팜한농 소속이 아닌, 그린 바이오 연구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팀에서 제가 종자 부분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맡으신 업무가 그런 바이오 분야에서 종자 연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육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종자 개발을 위해선 육종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가 하고있는 건 전통적인 육종은 아니고요. 전통적인 육종은 팜한농 내의 육종 연구센터라는 연구소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는 마커 개발이나 유전체 분석 같이, 품종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현재 계속 관심을 끌고 있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농학적으로 유용한 형질들을 찾아내서 그걸 채소 종자에 적용을 하거나 세계적인 곡물 종자인 콩, 옥수수, 밀 등에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만들어낸 형질들은 어느 쪽이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유전자 편집,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유전자를 발굴하고 그 유전자를 유전자 편집을 통해 개선한 뒤 각 작물에 적용해서 형질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LG 화학으로 오기 전에는 몬산토에서도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박사 때 온도 장애, 영어로는 temperature stress physiology를 연구했어요. 그 당시 10년 전쯤에 몬산토에서 temperature stress 때문에 작물들이 피해 보는 것을 개선해보겠다고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옥수수를 처음 심으면 봄에는 땅이 차가워서 옥수수가 냉해를 받을 확률이 높고, 발아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싹이 텃을 때도 서리가 끼면 냉해를 받는데, 그런 걸 잘 견디는 옥수수나 콩을 만들어보자해서 프로젝트를 꾸렸고, 제가 그 프로젝트에 scientist로 처음 취직을 했어요. 그 프로젝트를 2년 정도 하다가 그 팀을 맡아서 팀장을 했고요. 그 후로는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당시 산업계에서 최초로 저희가 자동화 온실을 지었어요. 물 주는 거, 비료 주는 거, 모든 것이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설정했고, 카메라로 매일 같이 사진을 찍어서 생육, 성장하는 패턴을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동화 온실을 만들어서 운영했어요. 제가 콩 분야를 전담하고 있었고 자동화 온실에서 키워지는 모든 콩에 대한 연구를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구를 7~8년 정도 하다가,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몬산토 본사에 가서 근무했습니다. 유전자 발굴을 해서 형질전환을 하고 종자를 만들면 실험실에선 그 수준에서 끝나고 그걸 필드에서 다시 테스트해야 하잖아요? 본사에 갔을 때는, 직책은 crop physiology lead라는 팀장 직책이었는데, 몬산토에서 테스트하는 모든 형질 전환체, 옥수수, 콩 전부를 관장하는 팀을 맡아서 제가 리드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벤치 scientist로 시작을 해서, 프로젝트 팀장을 하고, 나중에는 자동화 온실 전담하는 팀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필드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던 부분을 따라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벤치에서 보통 시험관 연구를 하다가, 조금 더 발전시켜서 온실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온실 다음으로 이제 필드에서 테스트를 해보자, 하고 관심이 생겨서 차근차근 제 커리어를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필드에서 1년 가까이 일하고, LG 화학의 초대를 받아서 여기 와서 연구하고 있어요.”

제가 관심있는 부분을 따라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벤치에서 보통 시험관 연구를 하다가, 온실, 필드 등 차근차근 제 커리어를 옮겨갔습니다.

일하고 계신 해당 분야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질전환 기술을 가지고 몬산토 같은 회사가 큰 성공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종자 산업이 세계적으로 많이 커졌는데, 사실 2~3년 전에 정체기에 와 있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형질전환 자체가 개발 기간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고요. 또 GMO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 안전성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해야하는데, 그 부분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서,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몬산토, 신젠타, 바이엘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손에 꼽을 정도가 되었어요.”

형질전환을 그 기업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약간 정체기에 들어갔었는데요. 지금은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 기술은 GMO 기술에 비해 훨씬 더 정밀하게 유전자를 표적할 수 있어서, 안전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많은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어요. 각 국가에서 GMO기술에 비해 훨씬 더 정밀한 기술이기 때문에 ‘특정한 경우에는 규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서, 현실화가 된다면 개발 비용이 획기적으로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10년, 12년 걸리고, 1000억에서 1200억은 투자를 해야지 세계적인 중차 상품이 하나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하면 그게 절반 이상으로 줄게 돼요. 5~6년에 500억 정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더 줄어 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많은 대학과 소규모 중소 기업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게 되어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전망은 굉장히 밝고요. 꼭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이 아니더라도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농업적으로 유용한 제품을 만드는 시도는 앞으로 수 년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학부 시절 경험과 진로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학부 시절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아마도 농대생이라면 다 비슷한 그런 고민일 거예요. 제가 학교 들어갈 때 사정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 서울대학교 들어올 정도 되면 공부는 다 잘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는데 사실 농생대라는 대학이 우리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사회적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농대 쪽으로 딱 관련이 되지 않으면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나?’ (웃음) 아니면 ‘전공을 다 뿌리치고 그냥 회사를 들어가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근데 사실 회사도 다른 경영학과 같은 과를 나온 사람들보다는 푸대접을 받았던 시대예요. 물론 회사를 들어갈 순 있었어요. 그래도 다른 전공자에 비해 대접이 소홀했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가고 싶진 않더라고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나한테 주어진 만족할만한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는 것. 그게 가장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은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고민이 어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쪽으로 해결이 되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요. 저는 농사지를 자신은 없었고, 제가 원예학과를 나와서 화훼, 채소, 과수 이런 걸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직접적으로 할 자신은 없었고 전공과 전혀 관련 없는 회사에 들어가서 좋은 대접 받지 못할 것도 싫었고요. 그러면 원래 유전공학, 조직 배양 이런 데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계속 공부해보자 싶어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
나한테 주어진
만족할만한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는 것,
그게 가장 고민이었어요.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외국으로 가서 대학원을 다니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유학을 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팁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저는 유학을 결정하고 나서 유학을 하는 동안엔 어려운 게 없었어요. 교육 환경도 좋고, 공부하고 연구하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치러내야 할 qualify exam이라던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건 남들도 다 하는 거니까 그런 걸 고민이라고 할 순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미국 시스템이 주는 합리적인, 노력한 만큼 결과를 낼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서포트를 해주는 게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그냥 이용당하는 게 아니구나. (웃음) 뭐, 대학원생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교수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분들이 나를 미래의 과학자로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양성할지를 생각하는 걸 피부로 느꼈어요. 그래서 어려움보다는 고마움이 더 많습니다.”

하나 조언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건 흥미로운 걸 찾아야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대학, 장학금 제공,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하는 공부가 정말로 흥미로운가, 그래서 정말 한가할 때 내가 책이라도 뒤적거려 볼 만큼의 관심은 있는가. 그게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고 보고요. 그게 없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 가는 친구들한테 조언을 한다면 다른 외형적인 현실적 문제보다는 이것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인지, 적어도 본인의 흥미를 끄는 것인지 먼저 질문을 해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가서 얼마든지 해보세요.”

그러면 해당 분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몬산토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 계기는요. 포스닥 하면서 1, 2, 3년차 되면서 고민이 깊어갔어요. 주어진 기간 안에 논문 발표를 많이 해서 국내로 귀국을 할 것인가, 교수를 해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두 가지가 결정을 회사 쪽으로 바꾸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학교에서 해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지도교수님들한테 받았던 그런 보살핌, 올바른 지도를 내가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정신적 부담감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그랜트 따고 연구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교수님들이 매년 학생들한테 적당한 지원을 꾸준히 해줄 수 있게끔 자기 프로그램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평생 잘 해낼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왔어요. 그 후에 회사를 보니까 회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유전자 바이블만 굉장히 심도 있게 열심히 하는 교수님이 있고 또 다른 것만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회사는 유전자 바이블도 하고, 형질전환도 하고, phenotyping도 하고, 그리고 그걸 노지에서 테스트도 하고, 실질적으로 육종에 활용을 해서 품종을 만들기도 하고, 회사에 들어가면 많은 걸 경험해볼 수 있겠다, 적어도 내가 하진 못해도 듣고 보고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랜트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웃음) 그래서 회사에서 다양한 걸 걱정 없이, 스트레스 없이 경험해보자 싶어서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학생 때 회사에 들어가면 이럴 것이라고 상상했던 점과 다른 점이나 더 좋았던 점이 있으실까요?

“학생 때는 막연하게 회사에 들어가면 맡은 일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는 것처럼 회사에 들어가면 PCR을 매일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연구하게 되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연구 기법이나 기술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연구를 합니다.

또 학교에 있을 때는 정해진 학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파고들잖아요?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설정된 목표가 학교에서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잖아요. 학교는 개방되어있고, 본인의 연구 진행에 따라서 새로운 발견을 할 수도 있고, 그럼 그 새로운 발견을 더 깊게 파고 들어가고. 그게 학교에서 하는 연구의 좋은 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회사에서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가뭄에 저항성을 가지는 콩 종자를 2025년까지 만들자!’라고 하면, 그러면 목표가 벌써 있는 거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2024년까지는 그 종자가 만들어져서 대규모로 양산이 돼야 하고, 23년까지는 필드 테스트를 마쳐야 하고, 22년까지는 온실 테스트를 마쳐야 하고, 21년엔 형질전환이 끝나야 하고, 20년에는 유전자 발굴이 끝나야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할 일은 유전자 발굴을 열심히 해서 차근차근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굉장히 cutting edge science를 하기 때문에 unknown한 것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들을 하나씩 규명해 나가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도전적인 일인데, 회사에서 하는 연구는 이미 알려진 방법과 알려진 outcome을 위해서 기술을 쓰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달성해 내는 건 어려워요. 예를 들어 형질 전환해서 가뭄 저항성 있는 품종을 만들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어려운 기술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가뭄 저항성 있는 콩을 만들어내는 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학교랑 회사랑 도전적인 부분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라고 해서 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학교라고 해서 항상 어렵고 힘든 것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양쪽 다 도전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학과는 원예학과를 졸업하셨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콩이나 옥수수도 다루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음, 새로 배워야 하니까 힘든 부분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재밌다고 느꼈어요. 모르던 부분이니까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부분도 공부할 수 있게 되었구나, 연구할 수 있게 되었구나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모르던 걸 알아야 하니까 공부 자체는 힘들죠. 근데 그걸 고생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미국 학교도 그렇지만 회사도 비전문 분야라는 걸 알면 그렇게 압박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그걸 인정을 하고 회사에서도 결정하죠. 이 사람이 비전문간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해야 하는가,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회사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인지가 돼서 결정이 되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콩에 대해 모르는 사람 데려다 놓고, 당장 내일부터 ‘콩 왜 이렇게 못 키워!’ 이러지 않고요. (웃음) 본인들도 충분히 알고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려줍니다. 나도 ‘이 사람이 나 콩 못하는 거 알면서도 나 뽑았으면 내 장점이 있었으니까 그랬겠구나, 그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열심히 배우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없었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나 흥미가 있지만 된다면 사실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학문이라는 게 10년을 하다 보면 집대성이 돼서 큰 걸 이룰 순 있지만, 처음 들어가서 배운다는 건 누구나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문이라는 게
10년을 하다 보면
집대성이 돼서
큰 걸 이룰 순 있지만,
**처음 들어가서 배운다는 건
누구나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학원 때도 계속 원예학 쪽으로 하셨다가, 회사에 들어가시면서 콩, 옥수수를 새로 하신 건가요?

“음, 대학 때는 학과는 원예학과였는데요. University of Florida의 horticulture department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했는데, 학과는 원예학과이지만 그 안에서 애기장대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예랑은 거리가 좀 있죠. 식물학과, 생물학과라고 하는 게 더 맞을 텐데 콩, 옥수수는 전혀 안 했었죠. 그랬는데도 애기장대를 안 하고 콩, 옥수수를 했던 건, 어차피 회사에 들어가면 애기장대로는 제품을 못 만든다는 걸 알았으니까 (웃음), 그런 기대도 안 했지만 뭔가 실용적인 게 내 손에서 나오는 걸 보고 싶다는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애기장대로 하면 논문이야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유용한 산물이 나오진 않는 거니까. 그래서 직접 손으로 뭔가를 한 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질문인데요. 대학 시절에 학업 분야에서 지금의 자신에게 도움이 된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김병동 교수님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제가 2학년 때 그분이 미국에서 처음 부임해주셨어요. 그때 당시 분자생물학을 거의 처음 한국에 도입하신 분이예요. 그래서 그분한테서 식물생리학 그리고 조직 배양을 들었던 그 두 가지가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최향도 교수님께서 분자생물학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세 과목이 학업적으로는 가장 저한테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의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분들과 많이 달랐어요. 최향도 교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다른 각도로 연구 질문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 주셨어요. 김병동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전혀 엉뚱한 호기심을 가져도 좋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분이예요. (웃음) 장미의 꽃받침이 이파리로 변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관심이 있어야 하나 생각하고 있을 때, 그걸 소개해주면서, ‘꽃받침이 다시 꽃잎이 된다는 게 희한하지 않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 같은 것들을 저한테 질문할 때 황당하기도 하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웃음) 아, 저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되는구나. 말이 안 되는 거 같긴 하지만 저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도 되는 게 과학자의 본분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새로운 눈이 좀 트였던 것 같아요.”

같은 진로를 꿈꾸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팁이 있으신가요?

“흥미를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했을 때 가장 기쁘고 보람찬지, 행복한지, 너무나 진부한 질문 같지만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유전자 편집 기술이 각광을 받고 이 분야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지만, 모든 산업은 항상 변하고, 항상 UP&DOWN이 있잖아요. 지금 이 분야가 활성화되어서 들어간들 10년 후나 20년 후에도 똑같이 유지되리란 법은 전혀 없거든요. 변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면 언젠가는 내려오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망을 보고 진로를 선택하는 건 정말 말리고 싶고요. 그 분야가 핫하다고해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로 유지하는 건 길어도 10년? 요즘은 그 주기가 더 짧아져서 그걸로 유지할 수 있는 게 한 5년 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평생 할 일을 5년의 전망에 베팅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모든 분야는 변한다는 걸 가정하고, 그렇다면 나는 그런 불확실성에 나를 맡길 것이냐, 아니면 그나마 컨트롤이 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한 나의 흥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견재해 나갈 것이냐 하면 두 번째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흥미로운 걸 하다 보면 내 분야가 꽃이 필 때가 있거든요.”

제가 20년 넘게 한 분야에 있으면서 보니까 내가 하는 게 내 일생에 언젠가 한 번은 꽃이 피요. 조직 배양이 좋은 예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공부할 때 그 분야가 굉장히 핫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직배양 사업을 시작해서 돈도 벌고 하는 걸 봤는데, 그 이후로는 이렇다할 산업적인 발전이 없이 조직 배양이 많이 쇠퇴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유전자 편집 때문에 다시 조직 배양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조직배양 쪽으로 사람들을 채용하고 싶은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그나마 제가 구한 몇몇 사람들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채용이 된 건데, 사실 그 사람들의 다른 면, 출신 학교나 학점 같은 걸 보면 전혀 LG 화학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기술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항상 변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면 나에게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기회가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분야의 전망을 보고
진로를 선택하는 건
정말 말리고 싶어요.
**흥미로운 걸 하다보면
내 분야가
꽃이 필 때가 있거든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걸 하면 좋은 점이 흥미를 갖고 있으면 뭐라도 하게 되거든요. 관심이 있으니까 책이라도 한 줄을 더 읽고, 실험이라도 한 번 더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쌓이고 발전되는 경험을 무시 못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외형적인 부분만 따라갔던 사람과 자기의 내면적인 흥미를 따라갔던 사람을 나중에 그들이 축적해온 지식이나 기술들을 비교해보면, 전자는 껍데기뿐이에요. 후자는 알맹이가 꼭 차있어요. 결국은 얘기해보면 다 알거든요. 페이퍼를 아무리 잘 냈어도, 얘기 몇 마디만 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교수님이 좋아서 페이퍼를 잘 냈는지, 자기가 정말 실험을 잘 해서,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이걸 잘 해냈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고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논문 잘 내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웃음) 이 사람이 당장 내가 원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하고 고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자기 흥미에 따라서 알맹이를 채운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죠. 초기에 1차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스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최종 관문까지 통과하게는 못해요. 최종 관문은 결국 자신의 진짜 실력으로 통과를 해야 해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너무 스펙이나 외형적인 면만 생각하지 마세요. 제 생각에 저희 동문 정도 되면 스펙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학점에 신경을 안 써서 3점 밑으로 떨어지면 좀 그럴겠지만. (웃음) 3.0 이상 되고, 우리 동문 같으면, 웬만한 스크리닝은 다 통과돼요. 그다음부터는 내 진짜 실력이나 흥미를 진솔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면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라서, 동문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라, 흥미 있는 걸 해라.”입니다.

선배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여쭙봐도 될까요?

“그리고 농대라고 해서 농업 분야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농대 들어왔다고 해서 농업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웃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리고 식품이 되었던, 예술이 되었던, 의학 쪽이 됐던, 뭐가 됐던 정말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을 대면하고 마주보고 있을 때, 부끄럽지 않고 후회가 안 되는 거죠. 괜히 내가 농대 나왔으니까 농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농업 분야를 너무 단순하게 종자 만들거나, 채소, 화훼, 과수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 안으로 들어가면 농업 안에도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제품을 개발하고 나면, 특허를 써야 해요. 특허를 가지고, 외국 기업들이랑 제품에 대한 기술 이전, 공동 개발 같은 것도 협의해야 되고요. 그러면 농업 분야 안에서 특허를 낼 수 있는 사람, 농업 회사들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농업이라는 테두리 안에 모든 세계의 element 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잘만 찾아내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변호사도 있고, 경영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농업 분야의 변호사, 농업 분야의 특허 변리사 이런 걸 할 수 있는 인재 pool이 굉장히 적어서 수요가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 동문들한테 경쟁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농업이나 본인의 전공 분야를 완전히 팽개치고 다른 걸 하기보다는, 잘 살려서, 내가 변호사 쪽이나 법 쪽으로 관심이 있으면, 혹은 특허에 관심이 있으면, 내가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고, 잘 연결시키면 오히려 굉장히 차별화가 되고, 경쟁력이 있는 qualification을 가질 수 있어요.”

농대생라고 해서
농업과 농학에 대해
도의적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농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내면
오히려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인터뷰 | 17기 윤석주
16기 윤유민
편집 | 17기 윤석주
16기 이호영

진로는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냥 저지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원예생명공학전공 04학번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사
김진희 선배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희입니다. 04학번으로 식물 생산과학부에 들어와서, 2008년도에 원예학과에서 학사를 졸업했어요. 그 후, 거의 졸업하자마자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통해 13년도에 박사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간에 쉬지 않고, 그대로 포스닥(박사 후 연구원)으로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에 있다가 바로 공채로 합격을 해서 지금 5년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사로 재직 중입니다.”

재직 중이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이에요. 농촌진흥청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R&D 기관이면서 ‘청’ 자를 달고 있는 기관이 아닐까 합니다. 농촌진흥청 산하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도 있고, 벼와 같은 식량을 연구하는 식량과학원, 축산 분야, 그리고 응용과학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는 농업과학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속해있는 원예특작과학원은, 채소, 과수, 화훼 쪽 원예작물부가 있고 인삼이나 담배 같은 특용작물 파트가 따로 있고 그 외에도 바이러스나 토양 환경 같은 부분을 연구하는 환경과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크게는 두 파트와 환경과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 제가 속해있는 채소과는 말 그대로 채소에 대한 전반적인 육종, 재배에 분자 육종 쪽까지 아우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소과에 속해있는 채소들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던데, 그걸 다 연구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불가능하고요. (웃음) 저희는 보통 메이저한 작물을 위주로 하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과채류 육종 연구실에선 주로 딸기, 호박, 수박 같은 박과 작물을 주로 다루고요. 가지과 연구실에서는 말 그대로 가지과에 속한 대표적 작물로 고추, 토마토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엽근 채소 연구실이 있는데 배추, 무, 상추 등을 다룹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연구실은 분자 육종 연구실이에요. 여러 가지 채소 작물의, 지놈(genome)을 베이스로 해서 생명공학 쪽이나 분자 육종 쪽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팀이 있어요. 그 외에도 최근엔 스마트팜이랑 연관지어서 이상기후 쪽의 재배 생리를 연구하는 쪽도 따로 있어요. 저희 연구실이나 그쪽 연구실은 작목으로 나누어진 건 아니고 기술 쪽이죠. 그렇게 채소과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 외의 기타 작물들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라고, 도농기술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특별로 지역 특화된 작물을 주로 연구합니다.”

선배님은 분자 육종 분야에서 업무를 하시고 계신데, 업무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육종이 목표예요. 육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작물을 개량하는 거예요. 배추를 예로 들면 초창기에 나왔던 배추는 맛도 없고, 속도 딱 차 있지도 않아요. 지금 배추를 보면 속도 딱 차 있고 크기도 커요. 맛도 달콤하고요.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육종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BREEDING 이라고 하는데, 농업 쪽에서 쓰이는 말이지만 상업 쪽으로 보면 신상품을 개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갤럭시에서 계속 새로운 버전의 제품이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웃음)

그런 육종 과정이 보통 식물은 힘들어요. 교배를 하고 육종을 하는 과정이 몇 세대를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여러분이 시중에서 보는 아삭이 고추, 이게 나오기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육종을 할 수는 없을까? 그게 저희 분자 육종 연구실의 가장 큰 업무입니다. 옛날에는 좋은 품종을 선별하는 걸 육종가의 감으로, 눈으로 선별했다고 하면 지금은 유전체 정보가 다 나와 있고 어떤 게 중요한 유전자인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좋은 품종을 손쉽게 찾아내는 연구를 합니다. 또 유전자 가위 같은 신육종 기술을 활용해서,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농업 쪽에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배님이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업무 외적으로도 복지 환경이나 근무 환경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들어와 있는 채소과의 연구직 공무원 같은 경우, 일반 공무원이랑 조금 다른 공무원이에요. 상당수의 6급 연구직 공무원은 행정 공무원이나 사법 공무원과는 다르게 대부분이 박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이 1개에서 3개, 또는 5개까지 주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요. 논문도 내고, 성과도 내고, 특허도 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정보들이 농업 쪽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합니다. 각자 자신 분야의 전문가고, 박사다 보니까 페이는 솔직히 말해서 괜찮은 편이에요. (웃음)

특히 냉정하게 말해서, 아직은 이런 농업 분야에서 남자보다 여자 친구들이 박사 학위를 받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전문직을 활용하고 비슷한 페이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연구직 공무원은 커리어가 다 인정되고요. 당연하겠지만 페이가 다 똑같거나, 하는 일이 더 많을 경우엔 제 쪽이 더 많죠. (웃음) 특히 여자 과학자로서 그런 부분에선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그런데도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일단 여길 들어오려면 최소 석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채용 기준에는 없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석사 또는 박사 학위가 없으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빠지면, 당장 대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공무원과 다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웃음)

그럼 원에 육종 분야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망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 이 학교 들어갔을 때도, 육종 분야에 꽂혔어요. 당시 제가 뉴스를 봤었는데 신품종 사과, 신품종 장미 이런 게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육종을 해야겠다 하고 들어오긴 했는데, 들어온 다음엔 정작 수업 내용 따라가면서 허덕이다 보니까 4년 동안 했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뭘 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이 분야도 잘 모르겠고. 그때 생각한 게, ‘그래, 우선 대학원에 가자.’ 잘한 건지 실수인지 잘 모르겠지만? (웃음) 어쨌든 그렇게 강병철 교수님 연구실에 갔습니다. 저는 길을 대학원에서 많이 찾았어요.

원에 육종 분야는
유전체 정보가 쏟아지고
신기술이 계속 개발됩니다.
시장 규모도 크고
선진국에 비교해
육종기술 수준도 높아요.

그리고 취직을 하면서 보니까, 어느 정도 실력만 있으면 저희는 항상 인력이 부족한 앞으로 100년 동안은 계속 부족할 것 같은 블루오션입니다. 취직 자리는 항상 있어요. 저희도 매년 연구사를 새로 뽑고, 관련된 육종 회사들도 매년 사람 물색을 합니다. 저희는 항상 티오가 있는데 기준에 맞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전문직이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 많이 연구를 해보신 분들, 학위 같은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구요. 그렇지만, 자격 조건만 있으면, 저희 강병철 교수님 연구실만 봐도, 저희 선배고 후배고 할 거 없이 취직을 못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 데려갔어요. (웃음) 그리고 원예 육종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듯, 유전체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신기술이 계속 개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많이 커졌어요. 그러면서 현재는 우리나라가 육종 기술 수준이 선진국이랑 비교해서도 꽤 높은데요 앞으로 더 높아져야죠. 앞으로 갈 길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블루 오션이고 단적으로 말해서 저는 제 자식이 농업 쪽으로 뛰어든다고 해도 찬성을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업무에 대한 질문이었고, 다음 질문부터는 학부 시절의 경험과 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학부 시절 진로에 관한 고민이 있었으면, 무엇이었나요?

“육종을 해야겠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1학년 때부터 배우는 과목들이 생소한 과목이고, 2-3학년 때는 노느라 바빴고, (웃음) 4학년 때 저는 대학원 갈 생각이었으니까 일단 대학원에 가야겠는데 어느 대학원을 가야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과 상의를 했는데, 원래는 꽃이나 과일 육종을 생각했어요. 그냥 봐도 더 예쁘잖아요? (웃음)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쪽 산업이 아직 미비한 상황이고, 교수님이 채소 육종 쪽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떻냐고 하시더라고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가끔 후배들 보면,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것들은 5분만에 고민을 끝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잘될 거면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밀고 나갔는데, 마침 2006년인가 강병철 교수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대학원 오라고 애들을 막 꼬셨죠. (웃음) 바이러스 저항성 관련해서 관심 없냐고. 또 제가 그런 쪽에도 관심이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제대로 낚인 거죠. (웃음)

원래 교수님이 처음 들어왔을 때 대학원은 기피하려고 해요. 졸업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대학원 들어가서 3년 내내 실험실 세팅하면서 시키는 실험하는데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 시기도 돌이켜보니까 필요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진짜 다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차마 대학원 들어오란 말은 적극적으로 못해요. 정신적으로 털리는 일이기 때문에. (웃음)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학교를 나와 보니까 세상은 더 살벌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은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회사는 이윤이 남는 거고. 제가 속한 연구소도 세금을 허투루 쓰면 안되잖아요. 제대로 연구를 해야 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고. 학교 안에서는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패를 해도 받아주는 게 있었더라고요. 당시엔 정말 힘들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방향은 방향대로 하고, 생각은 생각대로 하세요. 근데 진로는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냥 지르는 것도 답이에요. 대학원 갈까 말까 고민이 되면, 일단 신청서 던져요. 그 다음에 박사 과정을 해야하나 하면 일단 나는 여학생들한테는 좀 더 하라는 말을 해요. 근데 남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 어딘가에 진로를 걱정하는 영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저지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서울대생은 쓸데없이 걱정이 많거든요.

방향은 방향대로 하고,
생각은 생각대로 하세요.
**근데 진로는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냥
지르는 것도 답이에요.**

지금 하고 계신 업무가 대학 시절에 상상하고 기대했던 진로와 비슷한지, 아니면 생각보다 차이가 많은지 여쭙 보고 싶어요.

“완전 달라요. (웃음) 저는 전통 육종을 하고 싶었고, 분자 육종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제가 실험할 수 있다고 생각도 안 했고요. 저는 육종 회사로 가서 필드 쪽에서 일 할 거라고 상상했었어요. 근데 대학원을 가보니까 좀 더 여러 가지를 공부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일단 학교에 있다 보면 되게 학교에서 나오고 싶어요. (웃음) 그래서 일단 원예 연구소로 가보자 했다가 오히려 포스닥으로 지내면서 거기가 어떤 조직이고, 어떤 부분을 연구하는지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육종 자체는 아니지만 육종을 지원하는 기술 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연구하는 것도 생각보다 보람이 되겠구나 해서 가게 된 거죠. 학부 때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웃음)”

대학 시절에, 특히 학업 분야에서 지금 자신에게 도움이 된 점이 있나요?

“늦게까지도 도움이 되었던 수업이, 말하기 수업이에요. 사회에 나와 보면, 생각보다 종합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능력이 좀 필요해요. 그렇지만 배울 시간은 없어요. 여러 가지 학과를 다닐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곳도 더 이상 찾을 수 없고, 대학원만 해도 이미 시간이 없어요. 학부 4년이 유일한 기회였는데, 저는 사실 그 기회를 많이 놓쳤어요. 전공 과목 학점 올리는 것만 생각해서. 사실 대학원 들어갈 거면 그렇게 크리티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공채 시험 봐서 들어갈 거면 학점이 정말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웃음) 근데, 학점을 잘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전공에 특히 매진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나와보니까 그런 생각이 생각보다 협소하더라고요. 그게 서울대생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나중에 취직을 하면 서울대생들의 집중 잘하고 똑똑한 부분이 단점으로 돌아와요. 눈을 여기저기 돌릴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공계지만 인문사회 수업도 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서양문명의 이해’라든지, 아니면 ‘세계사’라든지. 말하기 수업 같은 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죠. 왜냐면 밖에 나가면 수없이 내에 대해서 말해야 하거든요. 말 잘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걸 평가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정도로. 내 실력 이상으로, 그런 부분을 보거든요. 시간이 있거나 기회가 있으면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 최종 목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일단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하는 육종 부분이 선진국 수준으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유일무이한 연구자가 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다른 조직에 가더라도, 이런 분자 육종이나 유전체 기반 육종 분야가 농촌진흥청 같은 기관에서 살아있을 수 있도록 좋은 후배들을 남겨 놓고 싶어요. 영원한 건 없거든요. 저도 언젠가 나가야 되는 거고. 제 꿈은 사실 내가 여기서 최고가 되는 것도 좋은데, 최고가 되면 그 사람 문 닫고 나가면 끝이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후배를 잡고, 열심히 전수해준 다음에 문 닫고 나가는 게 제 꿈입니다. (웃음) 그렇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이 분야가, 농업 쪽의 원예학 분야가, 계속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숨을 쉬면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 꿈입니다.”

같은 진로를 꿈꾸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팁이 있나요?

“제일 실용적인 팁은, 지금 매년 연구직 공무원을 뽑고 있어요. 농업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신양과학원, 축산업까지. 한창 안 뽑다가, 지금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시면서 계속 새로운 분들에게 대한 문이 열려 있어요. 시도해볼만한 제일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 싶다 하면, 기사 자격증이 있어요. 종자 기사도 있고, 식물 보호 기사도 있고. 이런 농업 관련 기사가 몇 개 있거든요. 이런 건 제 경험상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생각보다 무난하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런 자격증 하나로 가점이 0.5점이나 달려요. 0.5점이 되게 작은 것 같은데, 만약에 7등까지 뽑을 때, 7등과 8등 사이에 0.5점은 되게 큰 거거든요. 그 정도가 팁이 될 것 같네요.”

**육종 부문의 유일무이한 전문가가 되고 싶고,
그 다음엔 원예학이 계속 경쟁력을 가지도록 좋은 후배들을 남겨놓고 싶어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배님께서 농생대 졸업생이 어떤 장점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농업은 기초부터 응용까지 다 아우르는 학문이에요. 농업이라는 학문이 파면 팔수록 되게 매력적인데요. 기초도 다 들어가 있어요. 식물 생리, 호르몬 기작, 다 기초거든요. 그런 기초적인 세포적인 부분이 나중에 식물 개량 같은 응용 학문으로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산업화를 하는 게 농산업의 주요 목표거든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농업이라는 게 산업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아, 힘들면 다 때려 치고 귀농이나 해야지.’ 이러세요. 농업이 사업이라는 걸 모르고. 그래서 많이 망하시거든요. (웃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는 동안 일단 식물학, 생리학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농업 경제, 사회, 이런 부분까지 다 한 번쯤은 접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다 보니까, 자연대 나온 친구들, DNA만 보던 친구들이라던지, 오로지 응용만 보는 친구들과는 다르게, ‘이 둘을 어떻게 써 먹어 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이롭게 쓸까’ 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보는 시각이 아예 다른 거죠. 그런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농업이라는 학문이
파면 팔수록 되게 매력적이예요.
기초도 다루면서
응용 학문으로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산업화를 하는게
농산업의 주요 목표거든요.
다른 분야와는
보는 시각이 아예 다른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식물을 주로 다루잖아요. 원예 치료를 굳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는 아무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저 같은 경우는 딸기를 연구하는데, 향이 나고 피어나는 과정을 보면 그것만 봐도 굉장히 행복해지는 게 있어요. (웃음) 내 성과나 이런 걸 다 무시를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경이롭게 느껴져요. 생명이 교배를 통해서, 다시 꽃이 새로운 게 생기고 다시 열매가 만들어지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애기를 낳고. 저는 자식을 낳은 이유가 ‘아, 내 손으로 나의 DNA recombination을 보고 싶다!’ 였어요. (웃음),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었던단가요. 굉장히 생명이 신비롭다는 것, 세상이 이렇게 진화가 된게 되게 경이롭게 느껴지는 학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생대 들어온 거 굉장히 환영하고, 어떤 이유로 여기 들어왔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성적에 맞춰 들어왔든, 꿈을 가지고 들어왔든. 여기서 후배님들이 괜찮은 꿈을 찾아서, ‘나 농생대생이거든?’ 하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살거든요.

마지막으로, 농생대 후배들 아니면 특히 원예과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해주세요.

“저 때만 해도 그렇게 학점에 목숨 걸지 않았고, 그렇게 취직에 목숨 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길은 되게 많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경험 중에 쓸 데 없는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멍 때리며 핸드폰 보는 시간도 다 경험이거든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 멍 때리는 시간도 좋고, 방황하는 시간도 좋고, 근데 일단 이 학교에 온 것만으로도 한 단계를 다 거친 거거든요. 자격이 다 되는 친구들이예요. 혹시 인생 살아가면서, ‘와, 나 정말 돌대가리 같다’ 라고 생각이 되거나 ‘아 재는 진짜 잘 나간다,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열등감이 들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그렇지 않다고, 다 믿음만한 친구들이고, 다들 그럴만한 잠재력을 분명히 가진 친구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하면 돼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뭐든지 진행을 하세요. 그게 서울대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서울대생들이 완벽주의가 있어요. 1등 콤플렉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100점만 맞다가, 99점 한 번 맞았다고 땅 끝까지 파고 들어갈 것처럼 좌절을 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거든요. 그 정도도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누가 칭찬을 해주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이 정도면 잘했네!' 할 정도로 평가를 내릴 줄 알아야 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할 경험을 굉장히 많이 만드세요. 많이 실패해보고, 학점도 낮게 만들어보고, 그래도 인생 꼬이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인생이 백업이 잘 돼요. (웃음) 교수님 잘못 만났다고, 또는 대학원 잘못 들어갔다고, 또는 취직을 이상한 데 했다고, 인생 꼬이는 거 아니니까, 좌절하지 말라고요. 계속 쪽 가면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할 경험을 많이 만드세요.

실패해도 인생이 꼬이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인생이 백업이 잘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인터뷰 | 17기 윤석주
편집 | 17기 윤석주
16기 이호영

식물생산과학부

산업인력개발특성진공

Vocational Education

& Workforce Development

마상진 선생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32

전영욱 선생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P.36

타인 때문에,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는 일을 선택하세요
꿈이 명확하면 힘들지 않아요

산업인력개발학전공 90학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선배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1990년도에 농업교육과에 입학했어요. 95년도에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에 석사 과정으로 들어가서 2년 후에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를 사병으로 갔다 오고 바로 대학원 박사과정으로 들어갔고, 서울대학교 농업교육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다 수여 받았습니다. 2004년에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산하의 농업, 농촌, 식품 관련 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거의 260여 명의 직원이 있고요. 그중 박사 연구원이 80여분, 석사 연구원이 150여분,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 관련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농촌 경제와 농어촌 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국민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그럼 혹시 직장 내에서,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가진 연구원분들이 맡는 업무가 많이 다른가요?

“당연히 다릅니다. 박사들은 주로 연구의 책임자를 맡고, 석사 연구원들은 박사 연구원들을 보조해서 자료 수집들을 도와주는 업무를 맡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하나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박사 한 명에 석사 한 명, 또는 박사 한 명에 석사 두 명 정도가 배정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팀으로 박사 두세 명에 석사 한 명이 하게 되는데, 보통 박사가 여러 명 있을 때에는 그 중 한 명이 책임자를 맡고, 나머지 박사들은 공동 연구자, 석사는 보조 지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저희 연구소에 학부 졸업생들은 거의 없고요. 국책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통계적인 기술, 자료 수집 관련 능력, 본인의 writing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촌에 많이 가기 때문에 실제 현장 사람들 관련해서 인터뷰 스킬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배님께서 맡고 계신 업무는 무엇인가요?

“저는 농업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 들어 오려고 하는 사람들, 농업 분야에서 자기 능력을 개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관련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귀농, 귀촌 관련된 정책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농촌 식품 분야 관련 학교들 있잖아요. 농고, 농대, 그리고 요새는 일반 공대까지, 그런 청년들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40세 미만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 들어올 때, 3년 간 월 10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업을 제가 만들어서 시행되고 있어요.”

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과, 종사할 예정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국책 연구소에서 연구는 국가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아니면 실행한 후에 진행됩니다. 실행되기 전에는 그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인지,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을 연구하고요. 실행된 이후엔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다음엔 어떤 식으로 수정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걸 연구하죠.”

국책 연구소에 있는 건,
자신이 만든 정책이
제도화되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은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거죠.
사명감, 사회적 기여감이
명확해요.**

그럼,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으실 때는 언제 인가요?

“국책 연구소에 있는 건, 자신이 만든 정책이 제도화 되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엄청나게 다양한 연구를 했는데, 제가 죽더라도 그게 전부 제 이름으로 남잖아요. 그런 게 제일 보람 있죠. 특히 그게 민간 회사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온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거니까요. 그런 정책을 만들고 기여하고 있다는 사회적 보람이 크죠. 내가 하고있는 일이 내 돈벌이 또는 내 자아성취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여한다는 게 뿌듯합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관련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명감과 사회적 기여감이 명확해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다니기 전에 다른 직장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대학 강사 생활을 많이 했어요. 여러 대학에서, 서울대학교에서도 하고, 교대에서도 하고, 상지대에서도 하고, 이화여대에서도 하고요. 주로 시간 강사 생활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다양한 친구들, 연예인도 가르쳐 보고 그랬어요.”

선배님이 종사하고 계신 분야의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아시다시피, 농업 시대예요. 향후에는 4차 산업 혁명이라면서 바이오, 식품 산업 등 생산이 자동화 되고 있는데, 농업은 자동화 되지 못하는 측면이 많아요. 농업이라는 게 농촌을 끼고 있잖아요? 농촌이 자동화를 바라는 곳은 아니에요. 일부 자동화된 측면이 있지만, 그게 전체가 되진 않아요. 사람들의 휴양 공간, 체험 공간, 마음의 안식처, 그런 공간으로서 인구가 희소한 지역에 지속 가능한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에요. 다원적 공간이라는 건 농촌이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공간을 넘어서, 휴양, 체험, 전통문화 보존의 공간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생물학적 자원이 숨 쉬는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원적 기능은 되게 중요해요. 보통 '농업' 하면 농산물 생산하는 산업,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결과물로서의 농촌이라는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게 아마 우리 농촌의 미래가 될 거예요. 우리가 점점 4차 산업 혁명으로 가면서 집중화되고, 빨라질수록, 느리고 여유 있는 것에 대한 갈망이 생기거든요. 산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충 기능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 공간으로서의 농촌에서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요구는 높아질 것 이라고 생각해요. 그 산업 공간을 어떻게 국민들의 산업으로 꾸려갈 것인가는 조금 다른 차원이죠. 일반적인 산업 만능주의의 입장에서 첨단으로 달려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농업 분야에서도 첨단으로 달려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농산물은 과잉 생산되고 있어요. 더 싸게, 많이 생산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현재보다 조금만 더 많이 생산하면 농산물은 가격이 폭락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생산력은 다 높아져 있으며, 그걸 어떻게 스토리를 입혀서 의미 있게 소비자들과, 도시민들과 교류하는가, 그게 결국엔 6차 산업이거든요. 다원적 기능이 살아있는 농촌 공간 분야에 대한 미래가 제가 보기에 아주 큼니다.”

다음으로 학부 시절 경험과 진로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학부 시절,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면 어떤 고민을 하셨나요?

“그것보단 대학 들어와서 고민을 했죠. 제가 들어왔을 땐 여러 과를 복수 지원할 수 있었어요. 보통 농대 지망은 마지막 3지망 쯤에 걸쳐 높죠. (웃음) 저는 원하던 물리 쪽 학과에서 떨어지고, 마지막에 농업교육과에 되어서 원치 않게 왔죠.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시도 준비를 해보고 이것저것 하다가, 계기가 있었어요. 교수님이 농업과 관련된 강의를 했어요. 저는 저희 집이 농사를 지어서 어릴 때부터 농업 관련 일을 많이 해서 ‘난 농업 쪽은 진짜 싫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야간 그 수업에서 농업이 왜 중요한지, 지금 얘기한 다원적 기능 같은 내용을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셨던 일이, 본인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팡 때렸어요. 그래서 한번 관심있게 공부해볼까? 하고 고시 접고, 대학원 선배들하고 재밌게 지내면서, ‘아 정말 보람 있는 분야다.’ 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중고등학교 보내면서 농업, 농촌 분야를 체계적으로 알 만한 기회가 없잖아요.

저도 집에서 농사를 짓긴 했지만, 부모님이 그걸 알고서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후천적으로 각성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일찍이 2학년 말쯤에 대학원 가겠다고 결심하고 계속 공부를 했어요. 현재 진로도 그때 정했던 거 그대로 가서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꿈이 명확하면 힘들지 않아요.
다른 누구 때문에, 돈 때문에,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선택했거든요.

나 때문에 했기 때문에
동기를 중요시 해야 해요.

대학원 생활도 많이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대학원 생활은 어떠셨나요?

“자기 꿈이 명확하면 힘들지 않아요. 다른 누구 때문에, 돈 때문에,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만둘 순 있지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거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로 힘들거나 해도 그건 원인이 되지 않아요. 나 때문에 했기 때문에, 동기를 중요시 해야 해요. 나 때문에 할 거를 찾으면 진짜 재밌어져요. 거기에서 내가 태어난 소명감을 찾을 수도 있고, 사회적 기여감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걸 찾기가, 그걸 찾는 걸 도와줄 멘토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저를 통해서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가장 유리한 분야가 전공 분야예요. 다른 분야로 빠지지 말고, 여러분 전공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 알아봐요. 그러면 얼마나 그 분야가 중요한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대학원 선배들한테 학부 때부터 접촉해보세요. 단기적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 계획을 세워주세요. 부모님에게 좌지우지되고 그러지 말고, 나 때문에 뭘 해볼지를 여러분 전공 내에서 찾아보세요.”

현재 경험하는 직업이 대학 시절에 기대했던 직업과 비슷하지,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 말씀해주세요.

“다르죠. 다른데, 그걸 바탕으로 내 선택이 바뀌진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영혼이 그쪽을 향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나를 방해하는 사람과 여건이 많은데, 내가 그 분야에 투철하다면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혼 있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추구한다면요. 내가 항상 후배들한테 그래요. 누구 때문에 못했다고 핑계 대지 말라고. 나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위에 상사나, 지도교수 때문에 힘들겠지만 난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좋아서 한 선택인데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그만둬야 해? 더 열정 있게 일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인정받게 되면 되죠.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사회에 던질 나의 분야를 찾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는 이유는 없어요. 그냥 부모님의 생물학적 결합에 의해 태어난 거죠. 근데 이왕 태어났으면, 그래도 내 인생인데, 내가 의미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사람 인생이라는 건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의미를 없게 만드는 것도 본인이고, 있게 만드는 것도 본인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영혼 있게 내가 평생 동안 추구할 만한 그런 분야가 생기면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을 다니시면서 특히 학업 분야에서 선배님께 큰 도움이 된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공 분야도 있지만, 사회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키우기 위해 철학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요새는 책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제대로 보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뭔가 하나를 통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를 하세요. 좋은 책 하나, 예를 들면 ‘충, 균, 쇠’을 잘 보면 거기에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이 많아요. 그리고 ‘사피엔스’을 보면 거기에 각주도 많이 달려 있고 다음으로 이어나가기 좋아요. 특히 저는 ‘사피엔스’라는 책 추천드립니다. ‘사피엔스’에서 이스라엘의 하랄이라는 저보다 한두 살 어린 친구가 인류 사회에 대해서, 향후 4차 산업 혁명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제시했어요. 사피엔스는 한 3번 읽어보시고, 거기서 각주 달려 있는 책들을 계속 해서 읽으면, 아마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행복이란 뭐냐, 사람이 왜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내 생각과 그 친구 생각이 많이 비슷해서 저는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세요.”

책은 여러 권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책을 여러 번 읽어서 내 일상에서 사고로 전환시키는 게 중요해요. 다독이 아니라 반복해서 읽는 것. 그럼 왜 작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작가를 넘어서 그 이면에서, 내 인생에서 독특한 해석을 통해 전혀 새로운 시각을 하나 갖게 되는 거죠. 작가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 말고, 나만의 시각. 독서라는 건 그래요. 그런 인생의 영향을 주는 책 하나 만나면, 그리고 그걸 내 공부하는 분야와 연관시키면, 60억 인구 중에 유일한 자기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연구라는 건 re-search예요. 누가 search 했던 거 내 인생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정책 관점, 나만의 아이디어를 주는 거, 그게 research, 연구예요. 연구되었던 거를 자기 관점을 가진, 사회를 보는 관점을 가지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은, 존 듀이의 ‘민주주의와 교육’을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궁금합니다.

“제가 은퇴할 쯤엔 저희 연구소 정년이 아마 65세가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연구를 계속 하고, 연구들을 종합해서 후배들한테 도움이 될만한 책도 조금 더 쓰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 분야는 특히 ODA, 외국 국제 개발 쪽에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 일 하면서도 아프리카 나미비아에도 가고 그래요. 농업 쪽이 ODA 수요가 많고, 국제 개발 쪽 수요가 많거든요. 나이가 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가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책도 쓰시고, 국제 활동도 하시고, 아직도 멋진 비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부한다는 것은 내 생계를 위해 돈 버는 일과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해답을 던지고, 그게 의미 있다면 실제로 뭔가 움직여요. 직장 생활 일반적으로 하는 거랑은 달라요. 저는 꼭 공부를 계속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 17기 윤석주
17기 정석훈
편집 | 17기 윤석주
16기 이호영

순간순간 열심히 살다보면 기회가 오고,
다시 그 재미를 찾아가고, 그렇게 삶이죠
**저는 계획이 없던 게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 같은데요?**

산업인력개발학전공 97학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전영욱 선배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영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97년도에 산업인력개발학전공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농산업교육과였는데, 농업 교육이나 산업 교육 분야를 연구하는 교육과입니다. 2003년에 석사 과정에 들어갔고, 2005년에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2009년에 졸업했어요.”

현재 근무하고 계신 직장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는 대학원을 졸업함과 동시에 LS에 취업을 했어요. LS가 LG에서 분리된 기업인데, 분리되면서 연수원을 새로 만들어야 해서 제가 그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교육과정을 세팅하고 어떻게 사람들의 전문성을 성장시켜서 조직을 이끌 역량을 끌어낼까, 그런걸 많이 고민했죠. 2009년에 시작해서 2016년에 회사를 그만 두고, 서울대에 있는 진로직업교육연구소에 들어왔어요. 연구소에서 1-2년 있다가 2018년도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로 가게 되었어요. 제가 방송대 교수로 일한 지 이제 겨우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직장이어떠신가요? 라는 질문에 풍부하게 말씀드릴 게 별로 없네요. (웃음)”

어떻게 그 진로에 진출하게 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배님께서 그동안 직장에서 맡아 오신 업무는 주로 어떤 것이었나요?

“기업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사람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조직 문화를 잘 만들어서 조직 성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 고민을 주로 했죠. 저는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라는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서 일했어요. 인재를 어떻게 육성해야 하는지, 예를 들면 R&D 연구원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는지, 그걸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분야를 연구해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도 있고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저 혼자라서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경영 철학 관련 프로젝트나 신입사원 선발 도구를 만드는 프로젝트도 있었어요. 홍보 팀에서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 지에 대해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일을 7-8년 정도, 재미있게 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직장을 옮길 시점이 왔어요. 제가 할 일을 다 하고, 새롭게 할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찾아보자’ 하고, 회사를 무작정 그만두고 나왔어요. 마침 그 때 서울대 연구소에서 같이 일을 해보자고 해서 2년 정도 연구소에서 일했어요. 진로 직업교육연구소는 직업계 고등학교나 전문대학교 같은 직업 분야의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 연구를 했어요.

그 일을 2년 정도 하다가, 또 우연한 기회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교수로 오게 되었어요. 방송대는 우리나라 국립으로는 유일하게 원격으로 학위를 딸 수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요즘 들어서는 대학 학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학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아가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있는 곳은 청소년교육과인데 청소년들의 진로, 직업, 리더십, 창의성 같은 부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 그만두고 ‘뭐 해보자’ 하고 있을 때 우연히 연락이 와서 서울대 연구소에서 연구하게 되었고요. ‘또 뭘 해보자’ 했을 때 또 우연히 지금 방송대 교수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떤 우연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어요. (웃음)”

‘계획된 우연 이론’
언제 어디서
우연이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그 우연에 대해
눈 여겨 보고 관심있게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해당 분야, 직종으로 진로를 선택한 계기나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특별한 계기로 간 것보다는 기회들이 주어졌을 때, ‘이거 재미있겠는데?’ 하고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 석사 마치고 취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보단 조금 더 재미 있는 일을 해보자, 싶어서 박사 과정까지 하게 되었고요.

세상이 되게 재미있는게, 제가 이렇게 되리라곤 2년 전엔 생각지도 못했어요. 진로 분야 이론 중에 ‘계획된 우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추적해 봤더니 우연의 장면들에서 뭔가 계속 엮여서 가더라는 거죠. 그 우연이 삶을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삶을 더 좋게,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우연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된 우연이거든요. 우연을 많이 만들어야 해서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나요?’라고 물었을 때, 일반적으로 한 길만 달려온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언제 어디서 우연이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그 우연에 대해 눈 여겨 보고 관심있게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제가 박사를 마치고 회사 갈 줄 몰랐어요. 주변에서는 공부만 하다가 회사에 가면 충격 받을 거라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회사에 처음 입사하는건데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봤죠. 그랬더니 진짜 재미있는 게 많더라고요. (웃음)

연구라고 하면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를 많이 떠올리는데, 인적 자원에 대한 연구는 어떤 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실험실, 정확히 말하면 연구실은 존재해요. 조용하게 생각을 정리할 공간은 필요하죠. 방법은 설문조사, 인터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R&D 연구원의 전문성에 대해 연구할 때, ‘어떻게 전문성을 쌓아서, 결과적으로 본인도 자유로워지고 회사에도 기여할 수 있을까?’를 연구한다면, 가장 첫 질문은 이런 식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언제쯤 서울대 생활이 자연스러워지던가요?’라고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출석할 수 있고, 각동을 알고, 교수님과 소통하는 법을 알고, 그런 여러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이걸 역으로 R&D 연구원한테도 적용하면, ‘언제쯤 일이 손에 잡히고, 자연스러워지던가요?’라고 물어보면 답이 나오더라는 거죠. 보통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3~4년인데, 2년 정도 되면 일이 한 눈에 보인대요. 어떤 일은 해보지 않았더라도 대략적으로 알게 되는 게 사람이 편안해지는 시기거든요. 이런 종류의 연구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해 인터뷰를 하든지,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판단하는 방식으로 연구합니다. 실험실의 잘 설계된 실험이 아니라, 특정 상황 속에서 최대한 타당하고 신뢰성 높은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지금은 청소년교육과니까 청소년 관련 연구를 하고 있어요. 주제는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의 진로 패턴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분명 1-2년 전까지만 해도 ‘저 야구선수 될 거예요!’라고 말하던 친구가 2년 후에 ‘너 야구선수 된다며?’라고 물었을 때, ‘저 달리기 못하는 거 아세요?’라고 말한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꿈을 뺏어나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하고요. 우리나라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나, 직업교육도 연구하는데요. 2022년도부터 직업교육, 소위 말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직업 교육 학교가 대학처럼 학점제로 바뀌어요. 학점제로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연구합니다. 저 혼자서는 못하니까 직업능력개발원이라든가 공동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선배님이 종사하고 계신 해당 분야의 전망은 어떤가요?

“전망은 좋죠. 전망이 안 좋을 리가 없죠. (웃음) ‘직업이라는 게 왜 생겼을까’를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오는데, 직업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북촌 물장수’ 들어보셨나요? 6.25 전쟁 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지게로 물을 받아 올라가서 돈 받아오는 일을 했고, 그런 사람들을 북촌 물장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북촌 물장수는 지금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상수도 시설이 깔리면서 필요가 없어졌고, 그 일을 정수기 관리사 그런 사람들이 대신하고 있죠.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가치 또는 사회적 관심이거든요. 적어도 서울대에서 교수님들이 하는 분야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직업적인 가치가 없다면 그 분야 자체가 학생을 안 받고 자연스럽게 없어지겠죠. (웃음) 근데 다른 전공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전망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망은 비교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아요.”

말씀 들어보면, 새로운 것이나 변화하는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불안함은 없으셨나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나침반이 고정된 채로 멈추면 그건 버려야 하는, 고장난 나침반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필요가 없는, 사회에 대해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그런 건 저도 그랬어요.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불안함, 초조함을 다 거쳐서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여유롭게 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때 혼자 있으면 안되고요. 친구나 멘토나 선배, 그런 이야기 할 사람만 있으면 그런 불안함은 오히려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안해요.
하지만 사람이 멈추는 순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회적으로 필요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안함, 초조함을 다 거쳐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여유롭게 봐도 괜찮아요.**

현재 직접 경험하는 직업이 대학 시절 생각했던, 혹은 기대했던 진로와 비슷하나요?

“지금 직업은 제 대학 시절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불과 2년 전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직업이에요. (웃음)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원래 진로를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순간순간 열심히 재미있게 살다 보면 기회가 오고, 다시 그 재미를 찾아가고, 그런 게 삶이죠.”

되게 재미있는 게, 이제 15개월 된 어린 아이들이 식탁 의자에 막 올라가요. 올라가서 성취감에 기뻐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다가 5초 뒤에 울어요. 못 내려와서. (웃음) 그래서 내려 주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올라가요, 그러고 다시 울어. 근데 아이들이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더 무서운 걸 찾을 때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난 이 길 아니면 죽는다, 그런 건 없어요. 이 길 아니면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그 길로 가도 되는 거죠. 목표가 없으면 안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목표가 없어도 돼요. 목표가 너무 명확해도 신경 쓰이고, 목표량 나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순간 내가 초라해지거든요.

대학 때 배운 지식과 사회에서 직업적으로 사용하는 지식을 비교하면 뭐가 더 클까요? 사회에서 쓰는 지식이 훨씬 커요. 그렇지만 대학은, 사회에서 쓰거나 받아들이는 정보에 대한 시각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너무 세부적인 걸 배우려고 하지 말고, 큰 관점에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세요. 농생대에 있다고 전공 수업만 듣지 말고, 사회대 수업도 듣고, 공대 수업도 듣고,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하는 궁금증을 가져보세요. 한 가지 사상만 가지면 세상이 조금 좁아지고, 나중에 대화를 하더라도 좁은 대화밖에 못해요.”

대학은,
사회에서 쓰거나 받아들이는
정보에 대한
‘시각’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세부적인 걸 배우려 하지 말고,
큰 관점에서 다양한 걸 배우세요.

계획이 없다는 것에 학생들이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계획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되게 신기해요. 저도 항상 단기적인 계획은 세우지만 장기적인 계획은 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졸업했을 때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잘 못하고 있는 건가?’ 생각했는데, 생각이 많이 변하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되게 건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 한번에 다 올라가나요? 한번에 올라가면 죽어요. (웃음) 베이스 캠프를 하나씩 치고 올라 가잖아요. 그게 뜻하는 게 뭐냐면, 목표가 아무리 위대해도 사람들은 실현 가능성을 보고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전 세계를 구하겠다.’ 라는 목표만 있다면, 뭘 행동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뭐 ‘쓰레기부터 주워!’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한 학기나 1년 단위로 내가 뭘 할지를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아직까진 가능성이 더 많은 나이잖아요. 주변을 많이 둘러 보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는 게 좋아요. 계획이 있고 거기에 메이면 오히려 자유로움, 자연스러움이 사라져요. 저는 계획이 없었던 게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 같은데요. (웃음)”

직업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실 것 같은데,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느껴지는 때는 언제인가요?

“보람을 느낄 때는 엄청 많죠. 제가 원래 사람 만나는 걸 잘 못했어요. 그렇게 안보이죠? (웃음) 대학원생때는 연구만 하고, 논문 분석하고 그랬는데 대학원 박사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앞에 나서고, 강연도 해야하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아시죠? MBTI 이론의 근원이 된 사람이 융인데요. 융은 사람이 모든 특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 상황에 따라서 특성을 억누르고 살아간다고 했어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성성을 억누르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외향성을 억누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역으로 말해 보면, 어느 상황이던 나한테 이런 측면도 존재할 거라고 믿으면 좋더라고요. 저도 강의를 잘 못했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입 팀장 교육, 임원 교육을 할 때 보람을 많이 느껴요. 예를 들면, 신입 팀장 교육을 세 번에 걸쳐서 하거든요. 처음에는 교육 시켰는데도 맘대로 하더라고요. 근데 다음에 가보면 제 말이 맞다며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좋죠. 제가 진단을 해서 그 사람의 경향이나 걸림돌을 미리 알려주는 일이 보람찬 것 같아요. 임원 교육에서도 ‘전혀 생각지 못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당신의 옆에 바로 사람이 있고, 당신이 상사를 보는 그 순간 당신의 엉덩이는 부하 직원을 향하게 된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사를 보더라도 부하직원을 같이 보라고, 그렇지 않으면 부하 직원은 엉덩이만 보게 된다고. (웃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도움 됐다고 많이 하죠. 임원 교육 끝나치고 연말에 인터뷰를 해요. 그때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럴 때가 가장 보람차고 재미 있는 것 같아요.”

진로나 직업교육 분야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팀이 있으신가요?

“농산업교육과가 되게 특이한 과였어요. 교과 교육은 사범대에서 다 하잖아요. 근데 같은 교과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농산업교육과는 따로 떨어져 나와 있잖아요. 이 둘은 사실 큰 차이가 있어요. 사범대에서 하는 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일과 관련된 교육 과정이에요. 저도 기업의 HRD에서 일했고, 직업진로교육센터도 그렇고, 일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산업인력개발학 전공이나,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학교 말고도 사회에 대한 시선을 많이 길렀으면 좋겠어요. 사회학도 공부해보고 경영학도 공부해보고, 농업 교육과 심리학은 기본이고요. 넓게 공부해보고, 그 가운데에 나한테 정말 흥미로운 게 있다면 더 공부해보세요. 분야를 넓히지 않고, 좁게만 파면 사람이 좁아지거든요. 이 분야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라는 게 INTER + VIEW 잖아요. 서로의 관점을 교환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상당히 중요해서, 이 분야는 도서관에 있거나 연구실에만 있다고 결과가 나오는 학문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를 여쭙봐도 될까요?

“저는 목표 없다니깐요. (웃음) 저는 목표 없이 살아요. 대신 조금 도움이 되고 싶은 건 있죠. 진로 직업 관련해서 갈피를 못 잡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도 강의 하는데 질문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미래를 모르겠다. 추천해줄 책은 없느냐. 그래서 도움이 될만한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3년 정도 적응을 빨리 끝내고요. (웃음)”

**계획에 메이면
오히려 자유로움,
자연스러움이 사라져요.**
저는 계획이 없었던 게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 같은데요. (웃음)

인터뷰 | 17기 윤석주
16기 윤유민
편집 | 17기 윤석주
16기 이호영